

들다방이문

2025년 9월 92일 발행



미나리 이예버요. 사장님 안예버요.
니목따줄게 절친선 아이고 돈없다 아이고 돈나와
밥먹으려? 주은 직원에게 물어볼래? 뭐가 신부야 시부랄꺼~

평등한 밥상 특집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올해도 찾아온다!! "그들" 안오면 또 서운하죠~!!
올해도 밀년중에서 가장 행복했어? 일이사작한다. 웃으면서 살아서 퇴근할수있는 시간만들 기다리는 들다방스텝과 우리발달님들.

휴지대문 헌터스: 번뇌의 입편
108108108108108

오늘의 운수
1 2 3 4 5 6 7 8 9 10

무개념 인간 마리베이트
늘 여유하는대로 여유한다
늘 여유하는대로 여유한다

'한 장'의 의미를 모르는 악령으로부터 휴지를 지키는 들다방 헌터스의 모험이 시작된다. 들다방에서 한손에 흰색 백설기, 혹은 황토색 현미설기 띄운채 서성이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어느 날, 그들이 손에 든 설기가 띄어 아닌 티슈 뭉텅이를 알게 된 들다방 스텝!! 공용티슈함에 휴지는 한장씩 쏘아와 안내 그림이 붙어 있음에도, 꺾여뭉쳐 휴지를 한 뭉텅이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 이들! 그들은 입이 108개라 휴지를 108장가까야 하는 괴물이었음이 밝혀진다.

1 번비 해결
2 오늘 외곽비리치고
3 내일 휴가
4 친구 생김
오늘의 날씨
5 → 3
6 동수의보발효
7 휴지니특검법승인!

제중중량해드립니다 들다방요새요.
자립은 20kg/상근은 10kg보장! 중량하면 화물운송해드립니다!!
나 지금까지 말한거 다 안해도 잘먹었는데 아가새는 왜 그러는거야?
반말하지마세요! 아이스요? 따뜻하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예요!
<기루한 철수님> 들다방아침드라마
너무 커. (현수...) 집에 새로 산 전조개가 너무 커. 너무 잘 돌아고 웃도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커, 방을 너무 차지해. (현수...) 너무 작아. (현수) 동성이 열어서 전 조열장치까지 너무 작고만대 후자서 중전도 적적하고 전조개를 통과 다 하네요 너무 작운데 (현수) 집을 떠나야 해. (현수) 제주도 여장을 가야 해서 집을 떠나야 해. (현수...) 선생님 다음주에 봐요. "내일은 안 나오세요?" "내일 나오죠."

들다방은 오픈하자마자 찾아오는 첫번째 손님. 매년 향례 "공자" 주시요선생님. 공자로 물을 달라고 하는 형인이다. 안된다하면 불꽃 화를 내신다. 열이 많아서 목이마르신것 같은데 공자로도 될 물이 없어서 유감일 뿐이다. 배가고고 추워지는 날씨 들다방스텝은 비빔면은 먹고싶었지만 짬뽕은 언제가도 쪽절이다. 어떤손님 은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음료 없"냐며 따지기 시작한다. 그절다. 예상외의 인기로 정도부족한 사탕이 일어난다. 비것뭉쳐요! 일간 다다다 민져보기를 하는 사장님들다수. 삼성각은 없고 일간 민져야지 직성이 풀린, 한국 사각 뭉은 아주 힘들다. "올해도 못간 사각 많았어요. 어떤 분은 따뜻편과 확실히하고 물통을 안터라고요. 안아보고, 안뜨거운데요? 이러더라 고요.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나봐요." 들다방스텝의 거짓웃음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들다방스텝은 매년 매일매일, 천사같은 당신의 한 마디를 기다립니다. 안그러면 지옥에 함께 갈 준비는 되어있기 때문이죠. 휴지니 기자 (이연예부)

공용티슈뭉텅이를 지키기 위한 들다방 헌터스의 분투가 시작된다!! 들다방스텝은 공용 티슈함을 과감히 하나 없애고, 다른 하나에는 흰색 고무줄이라는 결계를 쳐서 티슈 혼물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흰 고무줄 결계를 넘어 괴물은 여전히 백설기만큼 휴지를 뭉텅이로 가져갔다. 심지어 한장씩만 뽑아 쓸 수 있게 만든 뱀핀 함에서도 양손을 무한 회전시켜 20장씩 뽑아가는 산기술을 선보이는 괴물까지 출현한다. 각종 핸드타월함에서는 공용티슈를 너무 뽑아가는 바람에 이미 휴지 채우기를 포기한 가운데, 자신의 휴지를 보충하지 못한 괴물이 들다방으로 모여드는데... (이어보기)

검찰은 휴지니가 들다방에서 따듯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열음 넣어달라해서 아이스로 먹는 문제를 조사하기위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나 홀로 전로 들다방! (현수) 집을 떠나야 해. (현수) 제주도 여장을 가야 해서 집을 떠나야 해. (현수...) 선생님 다음주에 봐요. "내일은 안 나오세요?" "내일 나오죠."

대모집 108108108108108
<휴지니 결혼 상대 모집>
행운의 걸 & 보이는 바로 명심♡
조건: 친척가족 찾는 사람 없는 돈 많고 휴지니에게 관심없는 사람
백스: 휴지니이후지니됨 들다방쿠폰 오늘이날시
탈출범인화열술집에서검거 공범오세훈을도주원조죄혐의로 현행법제포 조사에 따르면 오세훈과 윤석열은 일본에서자에서 아메리카노를민의혐 (이어보기...)

이밤에 끝낼자
네가 하면 어미애비도 못해낸다.
게 이 레즈비언 바 이 트랜스젠더
빨간 비빔밥은 내 운명-탈시설도 못말린 비빔밥 사랑♡ 사랑 사랑 사랑
탈시설한 장애인 동지들이 이야기할 때 시설에서 먹은 밥은 하나같이 악몽으로 기억한다. 소와 닭의 끔찍 때문에 식사 시간을 벌려야 했던 그들에게, 시설 직원들은 또한 대충 온갖 반찬과 밥국을 한데 비벼 한입에 쏘여넣고 했기에 장애인 동지에게 음식의 기억은 좋은 꿈도 없었다. 그런데 들다방에는 애써 칸칸이 나눠 배운 밥과 반찬, 국을 꼭 매운 국물로 새빨간게 비벼먹어야 하는 광명 탄탄함이 있다. 탄탄함은 저염볶음 국물, 감자국물, 감자국물, 처저장국물, 고추장도 없었던 상지 죽대하는 미니 고추장을 전동원치에가방에서 꺼내 밥을 새빨간 비벼먹자 비로소 환호였다. 들다방은 국물 정심, 저염을 낚아라 끼니마다 새로이 갖가지국과 반찬을 준비하지만, 탄탄함의 식판에서 한데 버무려지는 순간 모든 존재는 빨간색이 된다. 직접지는 양조식지 걱정도 되지만, 들다방음식을 거르지 않고 맛있게 드는 걸 보면 매년 새로운 맛을 느끼는 듯하다. "탄탄함만 맛있다면..." 들다방스텝들은 "저희 좋아요" 하며 웃는다. (분량조절 이슈로 2판으로 돌아올게요.)
들다방그즈가 나왔어요 주문폭주고만하면품절! 158개재입안해

* 이어보기 유료 결제 안내: 들다방에가서 500원 별도 결제 하시면 결말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즌 45가지 제공.
휴지여 디야 다 내거야, 내 휴지야
아저기 휴지다 휴지다
휴지 취~